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미원주민선교주일 자료집의 일부이며, 사도행전 2:14a, 36-41을 기초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연회의 미원주민사역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연 합감리교회, 세상, 우리 지역사회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 회복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별선교주일 헌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의 헌금과 함께 미원주민 사역을 강화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원주민종합계획의 2021-2024 비전은 네 분야에 걸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 미원주민 언어 보존
- 미원주민 토착 영성 이해
- 확산 중인 미원주민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 전 세계적 기후 정의 추구

오늘은 미원주민선교주일이며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미원주민 연합감리교인들로서 자유로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의 미원주민사역위원회는 레너피 부족(Lenape Nation)이 후원하는 마우치청크파우와우(Mauch Chunk Pow Wow) 행사를 도왔습니다. 미원주민사역위원회는 다른 상인들과 푸드트럭들 사이에 테이블을 준비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기숙학교에서 상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를 입은 어린이 및 가족들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도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고, 다가오는 행사를 통해 추가적 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원주민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회복, 배상,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세요.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합 감리교회 안에 허락하신 다양한 문화와 전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몇 곱절로 부흥케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관해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또한 미원주민사역을 위해 사용하셔서 해악을 치유하고, 치유와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